

학기 준비단계

독일의 학기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과 다르게 4월 10월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TUHH는 특이하게도 교환학생들에게 학기 시작전에 특별히 무엇인가를 이수할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기 첫 주에 굉장히 많은 절차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거주지 등록, 학교 등록, 비자 발급, 보험 신청, 수강신청, 교통카드발급 등등의 수많은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첫 주는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 비자 발급은 예전이랑 다르게 비자발급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으면 당일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기숙사는 이미 랜덤으로 방이 배정되어 있는데 독일은 기숙사를 대학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기 같은 학교 출신이라 해도 서로 다른 기숙사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에는 교환학생들이 Gustav-Radbruch-Haus 와 Harburg Haus에 나누어서 배정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환학생들이 한 플랫폼을 쉐어하도록 배치해 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환학생 8명이 하나의 Flat을 공유했습니다.

강의

한국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과목들은 한번의 기말고사로 인해서 성적이 결정되고 출석점수와 같은 점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제가 들었던 과목들은 과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유의할 특징은 한국에 비해서 정성적인 부분에 집중한 강의들이 많았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Semiconductor Technology라는 과목을 신청했을 때 반도체 내의 전하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요소를 수학적으로도 분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강의는 공정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할 일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생겼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강의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3시간 연속강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시험의 경우에는 written-exam과 oral-exam의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솔직히 oral-exam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단 두사람이 평가하고 학생 한 명과 교수와 조교가 질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영어가 독일대학생들처럼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잘 안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문제도 생겼었습니다. 문제는 oral-exam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긴 합니다.

기숙사 생활

제가 있었던 기숙사에는 몇 가지 규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정숙해야 된다는 내용도 불문율이지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금요일 밤마다 기숙사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그 소리가 제 방에도 항상 들렸습니다. 그래도 시설이나 공간등은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TUHH로 교환학생을 간 학생이 이번학기에 저 혼자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과 어울리기에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첫날 밤부터 제 기숙사 방을 두드리며 칠레인을 찾던 친구들 덕이기는 하지만 정말 쉽게 친해지고 개강 2일차부터 같이 놀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TUHH 교환학생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친하고 학기 내내 같이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파티나 바비큐를 준비하고 조직하거나 international dinner 등의 행사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생활에서 하나 신기했던 점은, 기숙사 공용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다른 모든 열쇠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벌금이 1200유로라는 것입니다.

생활

사실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생활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험료나 기숙사비 같은 사회 기본비용들은 한국보다 비싸지만 옷과 식료품의 물가가 한국에 비해 낮았습니다. 반면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식료품이 아니라 요리의 경우에는 거의 2배는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끼니를 직접 요리해서 먹게 되었고 요리 실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사실 옷의 경우는 싸구려 옷을 구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지 요즘은 다 비슷한 옷을 입으니까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함부르크의 경우에는 지하철과 버스가 대중교통인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교외에 좀 후미진 곳을 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하철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한국처럼 지하철이 촘촘하지는 않지만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편리합니다.

불편했던 점

사실 분명히 불편했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답답했던 것은 모든 서류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해도 미리 약속을 잡는데 보통 전화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뒤에 잡아줍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안 좋아져서 보험사를 통해서 병원에 연락했는데 약속을 1달 뒤에 잡아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좌를 개설한 뒤에도 여러가지 은행 카드나 비밀번호가 즉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을 통해서 하나씩 도착합니다. 은행 카드의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지 1주일뒤에 도착했습니다.

함부르크의 위치가 독일 북부인지라 기상예보가 맞는 날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도 조금 문

제입니다. 1주일동안 비 예보가 있었는데 한번도 안온적도 있고 3일 연속으로 맑음 예보가 있었는데 3일동안 간간히 비가 오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이 굉장히 덥지 않은 동네라 그런지 어디에도 에어컨을 찾아보기 힘든데 사실 그렇게 시원하지는 또 않아서 선풍기로 여름을 나기위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마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내가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에 무난히 적응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학창시절에 한번쯤은 꼭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